"위기의 농촌, 고품질 농산물 유통혁신 뿐"

전남출신 첫 농협중앙회 경제수장 김경진 대표 인터뷰

한·미 FTA 타결에 이은 한·EU, 한·중 FTA가 잇따라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방시나리오에 따른 우리 농촌·농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지자체와 함께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농협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2001년 농수축협이 하나로 통합된 이후 전남출신으로는 처음 이달 1일 농협중앙회 경제분야 수장에 오른 김경진(57) 경제대표이사를 만나 '위기의 농촌·농업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들어봤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보다 판로개척이 어렵다는 농업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평소 농산물 도매사업 혁신에 관심을 갖는 등 유통시장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고 들었는데요.

▲지난해 1월 도매사업부와 4개 권역의 도매사업소를 신설했죠. 연합사업단과 산지조합의 역할확대, 품목별 바이어의 역량제고, 유통업체별 맞춤형 마케팅으로 농산물 판매실적이 급성장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7천900억원, 하나로마트는 1조2천100억원까지 매출을 끌어올려 농업인들의 숨통을 터줄 계획입니다.

-수년전부터 광주 농산물 유통종합센터 건립 얘기가 돌다가 올초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지난 3월 광주시와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각종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부터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설계업체 선정 등을 거쳐 내년 3월 첫삽을 뜨게 됩니다. 그간 광주에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가 없어 지역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오는 2009년 8월이면 모두 해결될 전망입니다.

-광주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향후 농업인들과 광주·전남 도시민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수완택지지구 내에 위치할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는 3만8천㎡의 부지에 건평 4만5천㎡ 규모를 갖춰 오는 2009년 7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855억원의 건립비용은 농협이 전액 부담하구요.

수완지구에 유통센터 건립되면
물류비 줄고 홍수 출하 막아
광주·전남 생산·소비 '윈윈'

이 유통센터가 본격 가동될 경우 전남지역 농산물이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는 한편 농산물의 홍수출하 등에 따른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물류비용이 줄어들어 도시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내 고용창출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개방시대에 있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는데요.

▲미국산 수입쌀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미질이 떨어져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했으나, 올 들어 공매물량 대다수가 낙찰되는 등 수요가 늘고 있고, 포도·키위 등 수입과일도 국내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입니다. 이들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자면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작목반 단위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 활성화와 산지유통시설(APC) 이용의무화를 통한 공동선별·계산제도를 조기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40여년 만에 농협중앙회 경제수장에 오른 소감은?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1969년 고흥군조합에 입사한 이후 경제사업, 특히 농산물 유통쪽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면서 '성과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경제대표 취임과 함께 고민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요. 시장기능에 알맞는 조직의 재구성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도매사업 강화, 농산물 가공식품의 판로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특히 농협이 최소한 인삼·김치·콩나물·두부·참기름 등의 유통을 주도해야 한다고 판단, 조만간 농협식품판매회사를 설립해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서울=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약력=1950년 고흥군 포두면 장수리 출생, 고흥농고·방송통신대·고려대 대학원 졸업, 고흥군 지부장·하나로마트분사장·회장 비서실장·유통기획 상무 역임.

경영위기 처한 농업인 땅 올 953억원어치 사들인다

당초보다 387억 확대

농림부는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의 예산 규모를 당초 566억원에서 953억원으로 387억원 늘리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4월 시·군 지사를 통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예상보다 농지를 팔겠다는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모두 671명의 농업인이 총 915ha의 농지 매각 의사를 밝혔다. 농가당 평균 1.4ha를 2억5천500만원에 팔기를 원해 총 매도 희망가격은 1천7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 566억원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농지 종류별 신청 규모는 ▲논 528ha(58%) ▲밭 317ha(35%) ▲과수원 70ha(7%) 등으로 집계됐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땅을 농지은행이 사들인 뒤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

농가는 토지 매각 대금으로 빚을 청산할 뿐 아니라 매각 대금 1% 이하의 낮은 임대료만 물고 같은 땅을 5~8년 동안 빌려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땅을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연합뉴스

정부 혁신형 기업 지원 숫자늘리기식 육성 일관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융자자금 지원을 늘리고 있으나 혁신형 기업 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8일 발간한 보고서 '재정브리프'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11조원을 지원했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의 17.8%인 2조원에 달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이뤄지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자금 지원 규모는 2005년 6조2천억원, 2006년 9조6천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59.3% 늘어 전체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 30%를 차지했다.

이처럼 혁신형 기업의 수와 지원 규모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혁신형 기업의 질적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평가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양적 목표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경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시장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을 완화해 시장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企 글로벌 기업 육성 중기청, 참여업체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EO맞춤형 마케팅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CEO가 자사제품으로 각종 기법을 활용해 마케팅을 기획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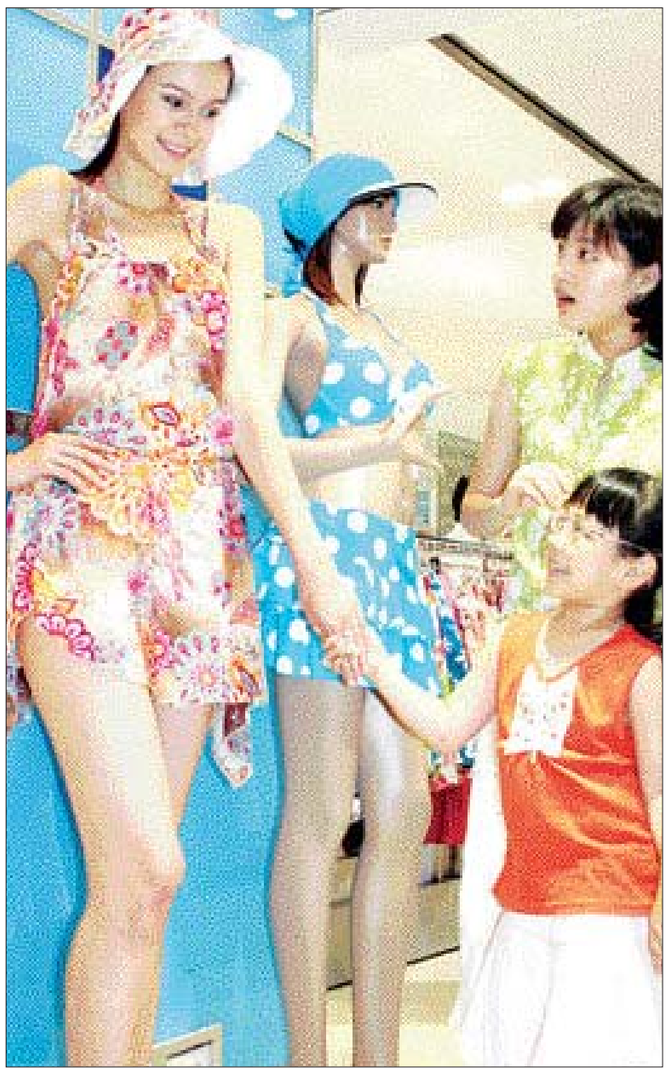
또 참여기업을 제품화단계와 시장진입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특성을 고려해 지원전략을 달리함으로써 기업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고 있다.

시범운영은 1개 과정, 20명의 CEO(20개 제품)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한남대학교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범운영 신청업체에게는 전문가의 진단분석을 통해 해당업체의 마케팅 문제점을 분석해주고,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의 쿠폰제 컨설팅사업 등에 연계해줄 방침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오는 13일까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042-629-8721, Fax 042-629-8722)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수영복 입은 마네킹 같은 모델 지난 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수영복 매장에 마네킹 역할을 하는 수영복 모델이 등장해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신세계는 이달말까지 매주 토요일(오후 2~4시) 마네킹같은 모델을 내세워 최신 유행의 수영복을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여경협 모범 CEO 표창

광주·전남지회 5명 수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최근 제 11회 여성경제인의 날을 맞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모범 여성기업인들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광주·전남지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재정경제부장관상=하성화 (주)한성ES대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임경순 (주)HK소방 대표 ▲여성가족부장관상=김영숙 밀알식품 대표 ▲국세청장상=이정남 (주)테라Enc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상=배문자 (주)연일산업 대표.

〈하성화 대표〉 〈임경순 대표〉 〈김영숙 대표〉 〈이정남 대표〉 〈배문자 대표〉

한편 광주·전남지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창립 8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